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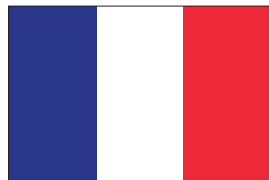


대구미술관 '모던 라이프'전 전시 전경.

대구미술관 제공



모더니티의 재발견



대구미술관·佛 매그재단 협의 전시

서양미술 사조는 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인간 이성성에 대한 비판, 실존적 인간 양상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서양 회화는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모더니티(Modernity-근대성)'의 재발견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더니티'는 '근대성'이라는 풀이보다 '현대성'이 오히려 더 적확하다.

대구미술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프랑스 매그 재단과의 글로벌 협의 전시인 '모던 라이프'전을 1전시실과 이미홀에 펼쳐놓았다.

매그 재단은 1964년 7월 26일 프랑스 최초의 사립미술관으로 출발해 ▷알베르토 자코메티 ▷조르주 브라크 ▷알렌산더 칼더 ▷마르크 샤갈 등 20세기 미술사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긴 유명 미술가들의 작품 1만3천여 점을 소장. 전 세계 미술관에 작품을 대여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전시는 양 기관이 2년여간에 걸쳐 소장 작품에 대해 협의한 결과, 두 나라의 작가 78명의 대표작 144점을 보여줌으로써 당대 예술가들이 부단하게 추구했던 미적 근대성을 관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회화의 전통을 가

1950년 중반부터 10년간 한불 예술가 변화 시도 양국 작가 78명 작품 144점 미적 근대성 보여줘 탈-형상화·추상·글...소주제 8개 나눠 실험 추구 서로 다른 회화 전통 가진 두 미술계 비교 재미도

진 두 미술계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모던 라이프'전은 대부분의 출판작에서 '모더니티'의 전이와 변용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둔다. 또 모더니티의 범주에 속한 모더니즘 미술을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치열한 예술적 실험을 통해 제 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미술의 전개를 필연적 진보의 역사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능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모두 8개의 소주제로 나눠졌다.

첫 섹션은 '탈-형상화'다. 인간 탐구를 바탕으로 변형된 구조와 독특한 변분함을 통해 양식에서 벗어나려는 예술의 자율성을 보여준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장 뒤뷔페, 홀리오 곤잘레스, 최영림 등 작품 15점을 보여준다.

두 번째 섹션은 '풍경-기억'이다. 유영국, 김창열 등 16점의 작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주변의 풍경과 기억을 소환한다.

세 번째 섹션은 '추상'이다. 모더니즘에서 빠질 수 없는 담론인 추상을 테마로 고차원의 사유를 이끌어내는 한묵, 이우환, 정정식, 이강소의 작품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브람 반 벨데, 파블로 팔라주엘로, 에두아르도 칠리다의 작품 등이 있다.

네 번째 섹션은 '글'이다. 앙리 미쇼, 한스 아르통 등 작품에 스며든 여러 형태의 문자와 최병소, 박서보, 이배 등 존재하지만 쉽게 식별되지 않는 문자들을 품은 작품이 배치돼 있다.

다섯 번째 섹션은 '초현대적 고독'으로 전후 모더니즘 미술이 끊임없이 쏟아낸 형식적 변화를 현대적 개념으로 계승한 작품들이 잠시 숨을 고르게 한다.

여섯 번째 섹션은 '평면으로의 귀환'이다. 평면성과 색채의 율동감을 보여주는 시몬 한타이, 클로드 비알라, 프랑수아 루앙과 김기린, 윤형근, 이우환, 리차드 세라의 작품을 통해 회화의 본질과 태생적 특성, 죽음의 과정을 겪어 야만 새롭게 태어나는 자연의 순리에

대입시킨 회화의 미래를 예견해본다.

일곱 번째 섹션은 '재신비화된 세상'이다. 이응노, 서세옥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존재성을 함축한 표현방식과 더불어 프랑스의 국보인 마르크 샤갈의 대형작품 'La Vie'(삶)를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 섹션은 '기원'이다. 알렉산더 칼더를 비롯해 이건용, 이우환, 리차드 롱의 작품이 설치돼 있는 이 공간은 인간과 자연, 세계와 우주의 지속적이며 순환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매그 재단 올리비에 들라발라드 객원 큐레이터는 "근대성이란 회화의 한 패러다임으로 규범에서 벗어나 독자적 예술성을 추구하게 된 경향"이라며 "양 기관의 소장품을 한 자리에 선보이며 하나의 개념을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것은 결코 어떤 이론이나 담론 속에 갇히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마당은 대구미술관 전시기획팀장은 "이번 전시의 핵심은 현재를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는 모더니즘의 독자적인 성질이 드러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는 유료로 성인 1만원, 청소년과 대학생은 7천원이다. 전시는 2022년 3월 27일(일)까지. 문의 053)803-7900.

유문기 기자 pody2@maeil.com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천경자(1924-2015)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1977년(54세), 종이에 채색, 43.5×36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노란 눈동자에 흰 동공... 그녀 자신을 비추는 거울

천경자는 인물을 많이 그렸고 대부분 여성이다. 자화상도 있지만 그녀의 여성인물상은 다른 사람의 모습에 비친 자신인 경우가 많아 '자전적 여성 인물상'이 천경자 회화의 주요 모티프이다. 멕시코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가 "내가 나 자신의 뮤즈다"(I am my own muse)라고 했듯이 천경자에게 영감을 준 뮤즈는 그녀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인 그녀 자신이었다. 화가들은 작품을 또 다른 자아로 여긴다. 천경자도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거나 동식물로 표현되거나 상관없이, 그림은 나의 분신"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그림은 더욱 그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몇 단계를 거치며 진화한 천경자의 화화세계에서 단독 여성 인물상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에 걸쳐 완성되었다. 그 전형이 자화상인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이다. 서양과 미술문화가 달라 조선의 화가들은 자화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김시습, 이광좌, 윤두서, 강세황, 채용신 등의 자화상이 전하지만 김시습은 판화이고, 이광좌와 채용신은 사진으로만 남아 있다. 우리나라 여성화가로는 나혜석의 1928년 유화가 처음으로 여겨진다. 천경자는 1969년 남태평양의 섬을 여행할 때 자화상을 여러 점 스케치로 그렸다.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는 천경자의 대표 자화상이다. 시적인 제목

과 달리 좀 무시무시한 이 자화상은 32년 전으로 돌아가 스물두살 때 모습으로 자신을 그렸다. 자화상은 대부분 현재의 자신을 기록하려는 그림인데 비해 특이하게 과거형인데다 사실적이지도 않다. 자신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하나의 전형인 통시적 자화상이다.

당당하게 정면을 주시하고 있지만 표정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노란 눈동자의 흰 동공이 여딘지 슬프면서도 결연한 초월의 느낌을 준다. 1970년대 들어서면 흰 동공이 나타나고 이어서 눈동자의 검은색이 노란색으로 바뀐다. 천경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금가루를 섞어 노란 눈동자를 그리면 더욱 강렬한 빛을 내면서도 슬퍼 보인다"고 했다. 인물을 설명하는 소도구는 머리에 피처럼 두르고 있는 초록과 주홍의 뱀 4마리와 가슴의 분홍장미 한 송이다. 이집트여행에서 보았던 파라오의 지혜와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 장식인 우라에우스(uraeus)에서 받은 영감과 화가 천경자를 알린 뱀 그림 '생태'의 아름다운 독사를 결합했다.

천경자보다 두 살 아래인 박경리는 시 '천경자를 노래함'(1988년)에서 천경자를 '용기있는 자유주의자', '정직한 생애', '좀 고약한 예술가'라고 했다. 1960년대 중반 박경리가 일간 신문에 장편 '파시'(波市)를 연재할 때 천경자가 삽화를 그려 둘은 한때 매일 어울려 다녔다. 미술사 연구자

‘잭슨 심 팝아트’ 세상에 대한 유쾌한 풍자

내달 5일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

웃는얼굴아트센터는 대중매체 속 캐릭터와 사회 풍자적 메시지를 자신만의 독특한 팝아트 기법으로 표현, 대중의 주목을 이끌어내고 있는 잭슨 심과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잭슨 심 개인전-My name will linger on your lips'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잭슨 심의 연대별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나의 이름이 모두의 입술에 맴돌게 될거야'라는 뜻의 전시 제목처럼 그의 독자적 화풍을 대중에게 알리게 된 배경을 연대별 작품을 통해 살핀다.

그의 2019년 첫 시리즈 'Good Enough'는 작가의 유년시절 동경했던 서구문화, 즉 만화나 명품 브랜드 로고, 유명 팝송의 가사들이 등장한다.

두 번째 시리즈 'Rain Rock Rollin'(2020)은 처음으로 잭슨 심의 세계관을 녹여낸 작업으로 작가가 이전에 동경했던 세상 속에서 강한 자가 되는 이치에 대해 정의의 내리며, 세 번째 시리즈 'Airplane'(2020)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제한된 일상



잭슨 심 작 'Good Enough Odyssey 11' 아크릴, 오일파스텔 116.8x91cm 2019년

을 마주한 시기의 작업이다.

네 번째 시리즈 'Comics'(2021)는 동화 속 캐릭터를 그만의 과감한 색채 구성과 풍자적 텍스트 배치 방식을 통해 유머러스하게 재해석하며, 다섯 번째 시리즈 'Pocket Punch'(2021)은 미술가에게 정의로운 권력이 주어졌을 때 세상에 끼칠 선한 영향력을 그만의 유쾌한 방식을 해석하고 있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맞아 개관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운영한다. 전시는 11월 5일(금)까지. 문의 053)584-8720. 유문기 기자

매일추천

뒷산에 가을이 한창이다. 툭, 밤송이 떨어지는 소리에 나만 가슴 설렌 게 아닌가 보다. 청서가 달려와 냉큼 물고 달아난다. 모퉁이를 지나니 잡나리는 간 곳이 없고 구절초가 피어 방긋대며 웃는다. 나는 놀라 입이 합치박만큼 벌어 지는데, 벌일 아니라는 듯 딱따구리는 나무만 쪼아댄다.

꽃은 거저 피지 않는다. 구절초는 이 가을에 피려고 지난 겨울부터 노력했을 터이다. 풍꽂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고, 셋바람에 연한 잎을 단련하고, 한여름 목마름을 수차례 견뎌야 비로소 구절초의 계절이 돌아온다. 봄에 개나리가 피려면 혹독한 겨울날이 필요하고, 피약 벌이 쌓여야 접시꽃이 핀다. 좋은 시절 다 두고 추운 겨울에 꽃피우는 수선화도 제 나름의 이유가 있다.

D고등학교에 보건교사로 근무할 때

너라는 꽃

다. 한 학생이 수업 도중에 보건실로 달려왔다. 학생은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울먹었다. "선생님, 이생팍망이예요." 열일곱 살 아이의 '이번 생이 폭삭 망'했다니. 밤새워 공부했던만 성적이 오히려 내려갔단다. 수재들만 모인 학교이다 보니 몇 배 노력해도 티가 나지 않아 절망스럽다는 말이다.

경쟁 사회에서 상대적인 평가를 피할 수는 없다. 성적은 노력의 대가이니 겉히 받아들일밖에. 그렇다고 밤새워 쌓은 지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인생이 폭삭 망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단지 상대적인 줄 세우기에 밀렸을 뿐이다.

꽃에 '상대적'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봄에 핀 꽃에 승자라거나 겨울에

핀 꽃에 패배했다고 하지 않듯이. 개나리는 봄에 노랗게 피어 예쁘고, 동백은 겨울에 빨갛게 피어 곱다. 꽃송이가 크든 작든, 꽃잎이 빨강든 노랑든, 봄에 피든 겨울에 피든, 꽃은 다 아름답다.

꽃은 절망하지 않는다. 피어난 자리를 불평하지 않고, 비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비바람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꺾였다가도 다시금 줄기를 곧추세운다. 키가 작거나 송아리가 성글어도 오롯이 제 모습으로 피어나려 부단히 애를 쓴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답게 피어난 자체로 꽃은 대견하다.

우리네 삶도 꽃과 같다. 비탈지고 메마른 환경에 태어나기도 하고, 시련에 흔들리고 꺾일 때도 있다. 비를 맞고 시

름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도 곳곳이 이겨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는 모두 꽃이다. 가혹을 위해 종일 도로 위를 누비는 배달원, 새벽잠 설치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버스 기사, 소방관, 간호사, 요리사, 경찰관, 교사, 미용사... 세상은 알뜰살뜰한 사람꽃이 다채롭게 피어난다.

아들아이가 예술고 입시를 앞두고 하루에 12시간씩 그림을 그린다. 성적 앞에서 늘 고개 숙이던 아이다. 공부에 몰두하지 못해도 그림은 끈질기게 그려낸다. 살뜰히 살아낸 하루하루가 모이면 꽃피울 계절이 오리라 믿는다.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너라는 꽃.



박채현

동화작가